

李白 <上安州李長史書> 역해

趙成千* · 趙得昌**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이백, 저는 특출하여
 - 2.2 저는 어려서부터
 - 2.3 저는 홀로 장검을 차고
 - 2.4 앞드려 생각건대 君侯께서는
 - 2.5 어찌 穉康처럼 뜻을 얻지 못해 낙담하여
3. 해설 및 결론

1. 서론

현존하는 李白의 散文은 모두 67편(賦 포함)과 <雜題四則>이다.¹⁾ 그의 산문을 문체에 의해서 보면, 書·表·序·記·頌·讚·銘·碑·祭文·辭·賦이다. 李白의 산문은 그의 삶과 사상을 고증하고, 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보조 자료가 되며, 그의 문학사상 및 예술세계를 조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李白에 대한 연구는 시 작품에 대한 연구 및 번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의 산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

* 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主著者)

** 協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交信著者 chodc38@nate.com)

1) 中華書局的 王琦 注 《李太白全集》에는 <比干碑>와 <雜題四則>이 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比干碑>는 《全唐文》에서는 李翰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며, 더욱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역주연구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詹鍔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은 校記·注釋으로 괄목할만하지만 국내 연구자들이 참고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春夜宴桃李園序> · <與韓荊州書> · <上安州裴長史書> · <爲宋中丞自薦表> · <地藏菩薩讚> · <爲宋中丞祭九江文> · <이백<大鵬賦>역주와 해제> 등의 역주연구가 있었다. 국내의李白 학술 연구 열기, 기간, 업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필자는李白 산문 전편을 역주하여, 국내의李白 연구에 중요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爲吳王謝賁赴行在遲滯表> · <爲宋中丞請都金陵表> · <爲宋中丞自薦表> ·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에 대해 역주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본고에서는 <上安州裴長史書>에 대한 역주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외李白 산문에 대한 첫 역주 성과가 되고,李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원문, 校記, 번역, 註釋, 解說의 형식을 취한다. 원문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校記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수록하면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것을 추가한다. 번역은 축사해석을 지향하되, 의미의 원활, 순통을 위해서 의역을 한다. 注釋은 자구 풀이는 물론 관련 用例, 典故 등을 들어 그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함으로써 학술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 연구를 수용하면서 연구자의 새로운 성과를 추가한다. 解說에서는 작품의 해제, 창작연대, 역대평론, 작품의 특성 및 예술성취 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詹鍔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을 기본으로 하고,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牛寶彤 主編 《李白文選》 등을 참고로 한다.

2. 본론

<上安州李長史書²⁾>

안주 이장사에게 올리는 서신

2.1 이백, 저는 특출하여

白, 嶽崎歷落可笑人也,³⁾ 雖然,⁴⁾ 頗嘗覽千載,⁵⁾ 觀百家,⁶⁾ 至於聖賢, 相似厥衆,⁷⁾ 則有若似於仲尼,⁸⁾ 紀信似於高祖,⁹⁾ 牢之似於無忌,¹⁰⁾ 宋玉似於屈原,¹¹⁾ 而

- 2) 安州: 지금의 湖北省 安陸市. 《舊唐書·地理志三》<淮南道>에서 “安州에는 중도독부가 있다. 수나라 때 安陸郡이었는데, 무덕 4년에 평왕 세충이 안주로 고쳤다(安州, 中都督府. 隋安陸郡, 武德四年, 平王世充, 改爲安州.)”라고 하였다. ○長史: 관직명. 《舊唐書·職官三》에서 “중도독부……長史 1인이 있는데, 정5품상이다(中都督府……長史一人, 正五品上.)”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李長史는 이백의 산문 <上安州裴長史書>에 나오는 安州長史 李京之를 가리킨다.
- 3) 嶽崎: 산이 높은 모양. 여기에서는 사람이 걸출하고 비범함을 비유한다. ○歷落: 嶽崎와 같은 뜻. ○可笑人: 可笑는 非常의 뜻. 비범한 사람, 대단한 사람. 《晉書·桓彝傳》의 “桓彝는 자가 茂倫이다. ……庾亮과 깊이 사귀었다. 평소 周顛의 신임을 받았다. 周顛가 한번은 탄식하여 말하기를 ‘茂倫은 뛰어난고 걸출하니, 진실로 비범한 사람이다’(桓彝字茂倫, ……與庾亮深交, 雅爲周顛所重. 顛嘗嘆曰:‘茂倫嶽崎歷落, 固可笑人也.’)”에 그 용례가 있다.
- 4) 雖然: 설명 이러하다 하더라도.
- 5) 頗: 자못, 꽤, 상당히. ○千載: 역대의 典籍
- 6) 百家: 제자백가의 저작. 《漢書·武帝紀贊》에서 “효무제께서는 막 즉위하시고 나서 돌연 백가를 내치셨다(孝武初立, 卓然罷黜百家.)”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顏師古는 “백가는 제자의 여러 가지 학설을 말하는데, 六經을 위배하였다(百家, 謂諸子雜說, 違背六經.)”라고 하였다.
- 7) 相似厥衆: 용모가 서로 닮은 이러한 예가 매우 많다. ○厥: 대명사로 ‘其’의 뜻. 이 글에서는 ‘이러한’의 뜻. ○衆: 多의 뜻.
- 8) 有若似於仲尼: 有若은 공자와 닮다. 有若은 공자의 제자. 공자가 죽은 후 그가 공자와 닮아 공자의 제자들이 그를 공자를 대하듯이 스승으로 섬겼다. 이와 관련된 글이 《史記·仲尼弟子列傳》에 나온다. “공자가 죽자 제자들은 애뜻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였다. 有若의 모습이 공자와 닮아, 제자들이 서로 함께 그를 스승으로 삼아 공자가 있을 때처럼 그를 섬겼다.(孔子既沒, 弟子思慕, 有若狀似孔子, 弟子相與共立爲師, 師之如夫子時也.)”
- 9) 紀信似於高祖: 紀信은 漢高祖와 닮다. 紀信은 漢高祖 劉邦의 대장군. 項羽가 滎陽을 포위하

遙觀君侯¹²⁾, 竊疑魏洽,¹³⁾ 便欲趨就,¹⁴⁾ 臨然舉鞭,¹⁵⁾ 遲疑之間,¹⁶⁾ 未及迴避.¹⁷⁾ 且理有疑誤而成過, 事有形似而類眞,¹⁸⁾ 惟大雅含弘,¹⁹⁾ 方能恕之也.

였을 때, 劉邦의 수레를 타고 거짓으로 漢王이라고 칭하며 項羽에게 거짓 항복하여 劉邦이 포위를 뚫고 도망칠 수 있게 하였다. 王琦는 이에 대해 “《史記》와 《漢書》에 紀信이 초나라를 속인 사건을 기재하고 있지만, 그의 모습이 고조와 닮았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 오직 《白帖》에서만이 紀信의 모습이 한왕[역주: 劉邦]과 닮아서, 황옥거[역주: 임금이 타던 누런 천 덮개로 되어 있는 수레]를 타고, 수레 왼쪽에 의장기를 달고, 한왕을 사칭하며 항우에게 항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무슨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 지 알 수는 없지만, 요컨대 반드시 의거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史記》、《漢書》載紀信誑楚事, 不言其貌似高祖. 惟《白帖》云紀信貌似漢王, 乘黃屋車, 左纛, 詐稱漢王出降項羽. 不詳出於何書, 要必有所本.)”라고 하였다.

- 10) 牢之似於無忌: 劉牢之는 何無忌와 닮다. 牢之는 劉牢之로 東晉의 장군이며, 無忌는 劉牢之의 외삼촌이다. 이와 관련된 글이 《晉書·何無忌傳》에 나온다. “何無忌는 劉牢之의 생질인데, 자신의 외삼촌과 아주 닮았다.(何無忌, 劉牢之之甥, 酷似其舅.)”
- 11) 宋玉似於屈原: 宋玉은 屈原과 닮다. 宋玉은 전국시기 楚나라의 시인으로 楚襄王을 섬겼는데, 楚襄王은 그가 屈原을 닮은 것을 싫어했다. 이에 대해 王琦는 그의 注에서 《襄陽耆舊傳》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였다. “宋玉은 음을 알고 글을 잘 지었고, 襄王은 음악을 좋아하고 부를 애호하여 宋玉의 재주를 칭찬하였으나, 宋玉이 屈原과 닮은 것을 미워하였다. 이에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시숙을 따름으로써 초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의 덕을 귀히 여기게 하지 않는가?(宋玉識音而善文, 襄王好樂而愛賦, 既美其才, 而憎其似屈原也. 曰:‘子蓋從俗, 使楚人貴子之德乎?’)”
- 12) 君侯: 원래 秦 후 중의 丞相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李長史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었다. 《漢書·劉屈氂傳》의 “이광리가 말했다. ‘원하옵건대, 군후들께서는 창읍왕에게 태자가 되시기를 일찌감치 청하소서(李廣利曰:‘願君侯早請昌邑王爲太子.’)”에 그 용례가 있는데, 주에서 如淳이 말하기를 “《漢儀注》에서 열후이면서 승상이 된 경우에 군후라고 칭하였다(《漢儀注》:列侯爲丞相稱君侯.)”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顏師古는 “《楊惲傳》에서 丘常은 楊惲를 일컬어 군후라고 하고 있다. 그런 즉 열후를 추승하여 부르는 존칭일 따름이다. 반드시 승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씨가 말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楊惲傳》丘常謂惲爲君侯, 是則進呼列侯之尊稱耳, 非必在於丞相也. 如氏之說不爲通矣.)”라고 하였다. 또한 趙翼은 《陔餘叢考·君侯》에서 “아마도 한나라 이후부터 군후는 지위가 높고 책무가 막중한 대신을 호칭하게 되었다. 때문에 입말로 서로 이어져서 무릇 현달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모두 군후라고 하였을 따름이다(蓋自漢以來, 君侯爲貴重之稱, 故口語相沿, 凡稱達官貴人皆爲君侯耳.)”라고 하였다.
- 13) 竊: 몰래, 속으로. ○魏洽: 당시 安陸人으로, 자세한 생평은 알려져 있지 않다.
- 14) 趨: 빨리 가다. 就: 가까이 다가가다.
- 15) 臨然: 황급히
- 16) 遲疑之間: 우물쭈물하는 사이. 遲疑는 猶豫의 뜻.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다.
- 17) 迴避: 피하다. 여기에서는 ‘신분이 높은 자를 만나면 피하여 공경을 나타내다’의 뜻이다.
- 18) 且理有疑誤而成過, 事有形似而類眞: 게다가 이치는 그릇되게 판별하면 잘못이 생기고 사물은 그 외형이 비슷하면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게 되다. ○且: 게다가 ○疑誤: 오해하다. ○類眞: 진짜와 비슷하다. 실제와 유사하다.
- 19) 大雅含弘: 才德이 높은 사람을 관대하다. ○大雅: 재덕이 높은 사람에 대한 讚辭. ○含: 포용하다. ○弘: 크다. 《文選》 권25 盧諶 <贈劉琨一首并書>의 “大雅는 너그럽고 관대

<校記>

[嶽崎]: ‘崎’는 咸本²⁰·郭本²¹에는 ‘崎’로 되어 있다. 송축본에는 다른 글자로 되어 있고, 陸本²²·劉本²³·王本²⁴·全唐文에는 모두 ‘崎’로 되어 있어 詹鐸은 ‘崎’가 옳다고 여겨 고쳤다.

[有若似於仲尼]: 於是 송축본에 원래 ‘其’로 되어 있는데, 咸本²⁵·陸本·郭本·王本·全唐文에는 모두 ‘於’로 되어 있어 첨영은 ‘於’가 좋다고 생각해 고쳤다.

[成過]: 咸本·陸本·郭本은 ‘過’ 다음에 모두 주를 달아서 ‘다른 책에는 이 한 글자가 없다(一本無此一字)’라고 말하고 있다. 何校陸本²⁶에서는 ‘一本無此一字’를 지워 놓았다.

이백, 저는 특출하여 여러 사람들과 다르며 비범한 사람입니다. 설사 이렇다하더라도, 일찍이 역대의 전적들을 자못 보았고 百家를 궁구하였습니다. 성현에 이르러 용모가 서로 닮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有若은 공자와 닮았고, 紀信은 漢高祖 劉邦과 닮았으며, 劉牢之는 魏無忌와 닮았고, 宋玉은 屈原과 닮았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으며 막중한 책무를 맡고 계시는 그대(李長史)를 멀리서 바라보고 속으로 魏洽이 아닐까 생각하여 곧장 다가가려고 황급히 채찍을 들었는데 우물쭈물하는 동안에 미처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치는 그릇되게 판별하면 잘못이 생기고 사물은 그 외형이 비슷하면 가짜를 진짜라

하여, 그 도량이 산과 높을 감싸 안는다(大雅含弘, 量苞山蔽.)에 그 용례가 있는데, 이에 李善이 “班固는 《漢書贊》에서 ‘大雅는 탁월하고 비범하다. 河間獻王(역주: 劉德)이 이에 근접하다’ 라고 하였다. 《周易》에서는 ‘포용하고 넓고 크며, 만물이 모두 형통하다’라고 했다(班固《漢書贊》曰‘大雅卓爾不羣, 河間獻王近之矣.’《周易》曰: ‘含弘光大, 品物咸亨.’)”라고 주를 달았다.

20) 明 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83권 중의 《李翰林集》30卷.

21)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30卷.

22) 明 正德14年(서기 1519년)에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10卷.

23) 明 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중 《李翰林全集》42卷.

24)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校刊本 《李太白全集》.

25) 明 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83권 중의 《李翰林集》30卷.

26) 淸의 何焯가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10卷에 교주하고 跋을 쓴 책.

고 여기게 되니, 오직 (그대처럼) 才德이 높아 관대한 사람이라야 이런 경우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2.2 저는 어려서부터

白少頗周慎,²⁷⁾ 忝聞義方,²⁸⁾ 入暗室而無欺,²⁹⁾ 屬昏行而不變.³⁰⁾ 今小人履疑

- 27) 周慎: 주도면밀하고 신중하다. 王琦는 “周慎은 전면적이고 상세하고 면밀하고 신중함을 일컫는다(周慎, 謂周詳審慎也.)”라고 하였다. 《後漢書》 권74 <胡廣傳>의 “삼가 생각건대 尙書僕射 胡廣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를 우쭐거리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주도면밀하면서 신중하며, 행동에 과실이 없다(竊見尙書僕射胡廣……不矜其能, 不伐其勞, 翼翼周慎, 行靡玷漏.)” 및 《文選》 권23 嵇康<幽慎詩>의 “만석[역주: 한나라의 石奮]은 주도면밀하고 신중하여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영예를 누렸네(萬石周慎, 安親保榮.)”에 그 용례가 있다.
- 28) 忝: 황송하게. 송구스럽게. ○義方: 일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도나 예법. 《左傳》 隱公三年의 “石碯은 간언하여 ‘신은 자식을 아끼어 예법으로써 가르친다면, 사악함에 빠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石碯諫曰:‘臣聞愛子教之以義方, 弗納於邪.’)”에 그 용례가 있다. 邢昺가 여기에 “方은 道와 같다(方, 猶道也.)”라고 疏를 달았다.
- 29) 入暗室而無欺: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도 누군가를 속이지 않다. 梁나라의 蕭世讚과 阮長之처럼 아무도 없는 암실에서도 법도를 지키를 말하고 있다. 蕭世讚과 관련된 글이 《南史·梁簡文帝紀》에 나온다. “梁나라의 강직한 선비 蘭陵사람 蕭世讚: 처세하고 도를 행함에 있어, 처음과 끝이 일관하였다. 비바람 몰아쳐 날은 밤과 같고, 닭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네. 아무도 없는 암실에서도 속이지 않았는데, 어찌 해, 달, 별 아래에서야 말할 필요가 있으랴? 천수가 이에 이르는 것이었으니,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있으리오?(有梁正士蘭陵蕭世讚: 立身行道, 終始若一, 風雨如晦, 鷄鳴不已. 弗欺暗室, 豈況三光? 數至於此, 命也如何?)” 阮長之와 관련된 글은 《南史·阮長之傳》에 나온다. “[阮長之]가 중서랑직성으로 있을 때, 밤에 이웃한 省에 가다가, 신을 잘 못 신고 집을 나서, 사실대로 알렸지만, 문하성의 관리는 어두운 밤이라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이에 阮長之는 다른 사람을 보내 ‘일생동안 암실을 업신여기지 않았소’라고 말했다.([阮長之]爲中書郎直省, 夜往隣省, 誤著履出閣, 依事自列, 門下以闇夜人不知, 不受列, 長之固遣送曰:‘一生不侮暗室’)”
- 30) 屬昏行而不變: 어두운 때 길을 가더라도 입장을 바꾸지 않다. 衛나라의 蘧伯玉처럼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밤에라도 법도를 지키를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글이 《列女傳·仁智傳》에 나온다. “衛靈公이 ……부인과 밤에 앉아 있는데, 수레소리가 빠드득빠드득 나면서 궁궐에 이르러 멈추었다가 궁궐문을 지나 다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공이 부인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부인이 말했다. ‘이 사람은 蘧伯玉입니다.’ 공이 말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시오?’ 부인이 말했다. ‘첩은 임금의 집문 앞에서는 예의를 차려 수레에서 내리고, 임금의 말을 공경스럽게 어루만지는 것이 임금을 심히 공경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름지기 충신과 효자는 남이 본다고 해서 입장을 바꾸고,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蘧伯玉은 衛나라의 현명한 대부입니다. 인자하고 지혜를

誤形似之跡, 君侯流愷悌矜捨之恩.³¹⁾ 戢秋霜之威, 布冬日之愛.³²⁾ 醉容有穆,³³⁾ 怒顏不彰. 雖將軍息恨於長孺之前,³⁴⁾ 此無慚德³⁵⁾; 司空受揖於元淑之際,³⁶⁾ 彼

갖추고 있으며, 공경스럽게 임금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어두운데 있다하여 예를 그만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그 사람임을 압니다(衛靈公……與夫人夜坐, 聞車聲磷磷, 至闕而止, 過闕復有聲. 公問夫人曰: '知此爲誰?' 夫人曰: '此蘧伯玉也.' 公曰: '何以知之?' 夫人曰: '妾聞禮下公門, 式路馬, 所以廣敬也. 夫忠臣與孝子不爲昭昭變節, 不爲冥冥墮行. 蘧伯玉, 衛之賢大夫也. 仁而有智, 敬於事上, 此其人必不以闇昧廢禮, 是以知之.)"

31) 流: 퍼다. ○愷悌: 온화하고 화목하다. <詩·大雅·旱麓>의 "온화한 군자여, 복을 구함에 온화하구나(豈弟君子, 干祿豈弟.)"를 鄭箋에서 "豈弟는 본래 또한 愷로 쓰인다. ……弟는 또한 悌로 쓰인다. ……豈는 화락(樂)이다. 弟는 화이(易)이다(豈弟本亦作愷, ……弟亦作悌. ……豈, 樂也; 弟, 易也.)"라고 하였는데, 孔穎達의 <正義>에서 "樂易는 구하니 얻어서, 그 마음이 즐겁고 화이(和易)함에 이른다(樂易謂求則得之, 其心喜樂簡易也.)"라고 하였다. ○矜: 불쌍히 여기다. <後漢書> 권106 <周澤傳>의 "공적인 것을 받들고 자신을 억제하고, 고독하고 허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돌봐줘, 관리와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우러러 섬겼다(奉公克己, 矜恤孤羸, 吏人歸愛之.)"에 그 용례가 있다. ○矜捨: 다른 판본에는 '矜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따라 해석한다.

32) 戢秋霜之威, 布冬日之愛: 추상같은 노함을 거두시고 겨울의 해와 같은 따뜻함을 베풀어주다. ○戢: 거두다. ○秋霜: 가을의 찬 서리. 荀悅 <申鑒·雜言上>의 "봄별처럼 기뻐하고, 가을의 찬 서리처럼 노하였다(喜如春陽, 怒如秋霜.)"에 그 용례가 있다. <文選> 권58 王儉 <楮淵碑文>의 "임금은 겨울의 따뜻함을 드리우고, 신하는 가을의 찬 서리의 경계하다(君垂冬日之溫, 臣盡秋霜之戒.)"에도 그 용례가 있는데, 李善은 "임금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겨울의 해와 같고, 신하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가을의 찬 서리와 같다. 鄧析子가 말했다. '임금은 겨울의 해와 여름의 그늘과 같다. 荀悅은 <申鑒>에서 [임금이 노하는 것은 가을의 찬 서리와 같다.]라고 했다.(言君垂恩有如冬日, 而臣戒懼, 常若秋霜. 鄧析子曰: '爲君者, 若冬日之陽, 夏日之陰. 荀悅<申鑒>曰主怒如秋霜.)' 라고 주를 달았다. 이 두 구는 李長史가 관대하여 이백이 길을 막아선 과오를 추궁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33) 醉容有穆: 함치르르한 용모는 온화하다. <文選> 권46 王融 <三月三日曲水詩序>의 "함치르르한 용모는 온화하고, 빈객들은 질서 있게 예의를 행한다(醉容有穆, 賓儀式序.)"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孟子>가 이르기를 '군자의 본성은 인의예지가 마음 속에 뿌리 박혀 있다. 이것이 나타내는 기색은 함치르르하게 얼굴에 보인다' 라고 하였다. 趙岐가 이르기를 '醉는 함치르르한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毛詩>에서 이르기를 '천자는 숙연히 제사를 올리네'라고 하였다(<孟子>曰: '君子所性, 仁義禮智根於心, 其生色也, 粹然見於面.' 趙岐曰: '醉, 潤澤貌也.' <毛詩>曰: '天子穆穆.')

34) 雖將軍息恨於長孺之前: 비록 대장군 衛靑이 汲黯의 오만무례 앞에서 분한을 삭였다하더라도. 將軍은 漢나라의 대장군 衛靑이며, 長孺는 漢나라의 汲黯이다. 이와 관련된 글이 <漢書·汲黯傳>에 나온다. "汲黯은 자가 長孺이다. ……사람됨이 성격이 오만하고 예의를 잘 차리지 않았다. ……대장군 靑이 더욱 존귀해지고, 그의 누이는 황후가 되었다. 그러나 汲黯은 피차 서로 동등한 예로 대우했다. 누군가가 汲黯에게 이르기를 '천자께서 못 신하들로 하여금 대장군에게 낮추라고 하였습니까. 대장군은 존귀하고 진실로 중하니, 그대는 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汲黯이 이르기를 '저 대장군으로서는 동등한 예를 행하는 빈객이 있다는 것이 도리어 중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대장군이 듣고, 汲黯을 더

未爲賢. 一言見冤, 九死非謝.³⁷⁾

<校記>

[矜捨): 捨는 郭本·王本·全唐文에서는 ‘恤’로 되어 있다.

[睟容): 송축본에서는 睟로 되어 있다. 繆本³⁸⁾·咸本·郭本·王本·全唐文에서는 睟로 되어 있는데, 첨영은 이것이 옳다고 여겨 고쳤다.

[長孫): 송축본에서는 원래 ‘長孫’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다른 판본에서는 孺라고도 한다(一作孺)”라고 주를 달았다. 全唐文은 송축본과 같고, 咸本·陸本·郭本·劉本에는 “一作孺”라는 주가 없다. 王本에는 ‘孺’로 되어 있고, 아

욱 어질게 여겨 조정의 의문가는 일을 여러 번 청하여 물었고 汲黯을 평소보다 더욱 禮待하였다. (汲黯, 字長孺……爲人性倨少禮, ……大將軍青既益尊, 姊爲皇后, 然黯與亢禮. 或說黯曰: ‘自天子欲令羣臣下大將軍, 大將軍尊貴誠重, 君不可以不拜.’ 黯曰: ‘夫以大將軍有揖客, 反不重耶?’ 大將軍聞, 愈賢黯, 數請問以朝廷所疑, 遇黯加於平日.)”

35) 慚德: 언행에 결함이 있어 내심으로 부끄러워하다.

36) 司空受揖於元淑之際: 司空 袁逢이 趙壹에게 읍을 받은 경우. 元淑은 漢나라 趙壹의 字이다. 이와 관련된 글이 《後漢書》 권 110 <趙壹傳>에 나온다. “趙壹은 字가 元叔이며, 漢陽西縣人이다. ……光和 元년에 郡上計(역주: 조정에 稅收를 보고하는 관리)를 데리고 도읍지에 왔다. 이 때 司徒 袁逢이 장부를 計吏(역주: 회계를 담당하는 아전)에게서 받는데, 計吏 수백 명이 모두 궁중에서 엎드려 절하며, 감히 고개 들고 보지 못하였다. 趙壹은 유독 장읍만 할 뿐이었다. 袁逢은 바라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좌우에게 그를 질책하게 명하고는 말하였다. ‘조그만 군의 計吏이면서 삼공한테 읍만 하니, 무슨 이유인가?’ 趙壹이 대답하였다. ‘옛날 酈食其는 한왕께 장읍을 하였습시다. 지금 삼공께 읍을 하였는데, 어찌 닦하시는지요?’ 袁逢은 웃음을 거두고 대청에서 내려 와 趙壹의 손을 잡고, 이끌어 위쪽에 앉히고는 西縣의 일을 묻고 크게 기뻐하며, 돌아보고 좌중에게 일컬어 말하였다. ‘이분은 漢陽의 趙元叔이십니다. 조신들 중에 이 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나누어 앉기를 청합니다.’ 좌중들은 모두 그를 주목하였다(趙壹, 字元叔, 漢陽西縣人. ……光和元年, 舉郡上計到京師. 是時司徒袁逢受計, 計吏數百人皆拜伏庭中, 莫敢仰視. 壹獨長揖而已. 逢望而異之, 命左右讓之曰: ‘下郡計吏而揖三公, 何也?’ 對曰: ‘昔酈食其長揖漢王, 今揖三公, 何遽怪哉?’ 逢即歛衽下堂, 執其手, 延置上坐, 因問西方事, 大悅. 顧謂座中曰: ‘此漢陽趙元叔也, 朝臣莫有過之者, 吾請爲諸君分坐.’ 坐者皆屬觀.)” 여기에 대해 王琦가 “누군가는 그 일을 인용하고 있는데, 司空이 읍을 받은 일은 미상이다. 司空은 마땅히 司徒이며, 元淑은 마땅히 元叔의 잘 못인 지는 알 수 없다(或用其事. 司空受揖事未詳. 司空當是司徒, 元淑當是元叔之誤, 未可知也.)”라고 하였다.

37) 冤: 여기에서는 첨영의 의견을 반영하여 免으로 번역하였다. ○九死: 아홉 번 죽다. 여기에서는 ‘천만번 죽더라도’의 뜻이다. 《楚辭·離騷》의 “(이것들은) 또한 내가 애호하는 바이니, 비록 천만 번을 죽을지라도 오히려 후회하지 않으리(亦余心之所善兮, 雖九死其猶未悔.)”에 그 용례가 있다.

38) 清 繆曰崑의 송축본을 영인한 《李翰林集》30卷.

래에 “다른 판본에서는 孫이라고도 한다(一作孫)”라고 주를 달았다. 何校陸本에서는 ‘孫’을 ‘孺’로 고쳐 놓았다. 첨영은 ‘孺’가 옳다고 여겨 고쳤다.

[此無]: 송측본에는 원래 ‘比無’로 되어 있다. 繆本·咸本·郭本·劉本·王本·全唐文에는 ‘此無’가 없다. 黃校繆本³⁹)에는 ‘比’를 ‘此’로 고쳐 놓았다.

[受揖]: ‘受’는 송측본에는 원래 ‘愛’로 되어 있다. 繆本·咸本·郭本·王本·全唐文에는 ‘受’로 되어 있고, 黃校繆本에는 ‘愛’를 ‘受’로 고쳐 놓았는데, 첨영은 ‘受’가 옳다고 여겨 고쳤다.

[見冤]: ‘冤’은 王本の 주에서 “마땅히 免으로 써야 한다(當作免)”라고 하고 있는데, 첨영은 이것이 옳다고 한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못 주도면밀하고 신중하였으며, 송구스럽게도 반드시 올바른 사람이 되는 바른 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도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어두울 때 길을 가더라도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소인은 오해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외형이 비슷하여 진짜로 여긴 족적을 밟았지만, 그대께서는 온화하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추상같은 위엄을 거두시고 겨울의 해와 같은 따뜻함을 베풀어주셨습니다. 함치르르한 용모는 온화하시고, 노기 띤 안색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대장군 衛靑이 汲黯의 오만무례 앞에서 분한을 삭였다하더라도, 덕행을 손상시킨 것은 아니옵니다.司空 袁逢이 趙壹에게 읊을 받았지만, (그대와 비교하면) 그는 어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말로 저에 대한 책임추궁이 면제되었으니, 천만 번을 죽을지라도 감사함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2.3 저는 홀로 장검을 차고

39) 淸 黃丕烈이 繆本을 평정하고 교정한 판본.

白孤劍誰託, 40) 悲歌自憐, 迫於恹惶, 41) 席不暇暖, 42) 寄絕國而何仰, 43) 若浮雲而無依, 南徙莫從, 44) 北遊失路, 遠客汝海, 45) 近還邳城, 46) 昨遇故人, 飲以狂藥, 47) 一酌一笑, 陶然樂酣, 48) 困河朔之清觴, 49) 飮中山之醇酎, 50) 屬早日初

- 40) 孤劍誰託: 홀로 장검을 차고 누구에게 의탁하리오. ○孤劍: 홀로 장검을 차다. 이백 자신을 나타낸다. 陳子昂<東征答朝臣相送>의 “홀로 장검을 차고 장차 누구에게 의탁하리오, 면세의 노래를 길게 부르네(孤劍將何託, 長謠塞上風.)”에 그 용례가 있다.
- 41) 恹惶: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편할 틈이 없다. 《文選》권45 班固<答賓戲>의 “성현의 다스림에는 바쁘고 편안할 틈이 없으니, 공자의 자리는 따듯할 틈이 없었고, 목자의 굴뚝은 그을음으로 검어질 틈이 없었다(聖哲之治, 棲棲遑遑, 孔席不暖, 墨突不黔.)”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棲遑은 편안하게 거하지 못함의 뜻이다(棲遑, 不安居之意也.)”라고 주를 달았다.
- 42) 席不暇暖: 앉은 자리가 따듯할 겨를이 없다. 이와 관련된 글이 《世說新語·德行》에 나온다. “武王이 商容이 사는 마을을 찾아다니느라 앉은 자리가 따듯할 겨를이 없었다.(武王武商容之間, 席不暇暖.)”
- 43) 寄: 객지에 살다. ○絕國: 아주 먼 나라. 여기에서는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文選》권16 江淹<別賦>의 “한번 지극히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어찌 서로 만날 것을 기약하리오(至如一赴絕國, 詎相見期.)”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絕國은 지극히 먼 곳이다(絕國, 絕遠之國.)”라고 주를 달았다. 王琦는 “絕國은 먼 곳을 일컫는다(絕國, 謂遠地.)”라고 하였다. ○仰: 머리를 들어 멀리 바라보다. ○依: 의탁하다.
- 44) 莫從: 무엇을 좇을지 모르다.
- 45) 汝海: 汝水を 가리킨다. 河南 大孟山 동북쪽 梁縣 동남쪽에 이르는 곳에서 발원하여 襄城, 潁川, 汝南, 汝陰을 지나 淮河로 들어간다. 《文選》권34 枚乘<七發>의 “남으로는 荊山을 바라보고, 북으로는 汝海를 바라보네(南望荊山, 北望汝海.)”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郭璞은 《山海經注》에서 ‘汝水는 魯陽山の 동쪽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淮海로 들어간다.’라고 말했는데, 汝는 海를 칭한 것으로 과장하여 말한 것이다(郭璞《山海經注》曰:‘汝水出魯陽山東, 北入淮海.’汝稱海, 大言之也.)”라고 주를 달았다.
- 46) 邳城: 安陸을 말한다. 《通典》권183에서 “安州가 지금 安陸縣을 관할하고 있다. 춘추시기의 邳子國이다. 雲夢澤이 여기에 있다. 후에 초나라가 郢을 멸하고 門辛을 봉하여 郢公으로 삼았는데, 바로 이 땅이다(安州, 今理安陸縣. 春秋邳子之國. 雲夢之澤在焉. 後楚滅邳封門辛爲郢公, 卽其地也.)”라고 하였는데, 이 글의注에서 “郢은 때로는 鄖으로 쓴다. 郢, 鄖과 溇은 모두 음이云이다(郢或作鄖, 郢、鄖、溇皆音云.)”라고 하였다.
- 47) 狂藥: 술. 《晉書·裴楷傳》의 “長水校尉 孫季舒가 일찍이 石崇과 흥겹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오만함이 지나쳐서 石崇이 표를 올려 그를 면직시키려 하였다. 裴楷가 그 사실을 듣고, 石崇에게 일컬어 말하였다. “그대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서는 올바른 예의를 갖대로 사람을 질책하니, 또한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니오?(長水校尉孫季舒嘗與石崇酣燕, 慢傲過度, 崇欲表免之. 裴楷聞之, 謂崇曰:‘足下飲人狂藥, 責人正禮, 不亦乖乎?’)”에 그 용례가 있다.
- 48) 陶然: 취하여 즐거운 모양. ○酣: 취하다.
- 49) 困河朔之清觴: 황하 이북의 맛좋은 술을 몽땅 들이키다. ○困: 다하다. ○河朔: 황하이북 ○清觴: 투명한 술잔, 맛좋은 술(美酒). 이와 관련된 글이 《初學記》권3 魏文帝<典論>에 나온다. “천자가 許昌을 도읍으로 삼고, 光祿大夫 劉松을 시켜 북쪽으로 가서 袁紹의 군대를 진압하게 했다. 劉松은 袁紹의 자제들과 날마다 함께 연회를 하며 술을 마셨다. 황

眩,⁵¹⁾ 晨霾未收,⁵²⁾ 乏離朱之明,⁵³⁾ 昧王戎之視,⁵⁴⁾ 青白其眼,⁵⁵⁾ 瞽而前行,⁵⁶⁾

상 삼복 때에는 밤낮으로 실컷 마셔, 아주 취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한 때의 더위를 피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그래서 河朔에 피서하며 술을 마십의 전고가 있게 되었다.(大駕都許, 使光祿大夫劉松北鎮袁紹軍, 與紹子弟日共宴飲, 常以三伏之際, 晝夜酣飲, 極醉, 至於無知, 云以避一時之暑, 故河朔有避暑飲.) 그리고 江總 <瑤瑟謠賦>의 “황하의 아름다운 보물을 얻고, 河朔의 이름난 술잔을 사용하네(獲阿宗之美寶, 命河朔之名觴.)” 및 庾信 <聘齊秋晚館中飲酒>의 “이 河朔의 술 마심을 즐겨워하고, 이 洛陽의 인재와 마주하네(欣茲河朔飲, 對此洛陽才.)”에 그 용례가 있다.

50) 飤中山之醇酎: 中山 땅의 맛좋은 술을 배불리 마시다. ○飤: 배불리 마시다. ○酎: 세 번 빛은 술. <說文解字>에서 “酎은 세 번 빛은 순주이다(酎, 三重醇酒也.)”라고 하였다. <文選> 左思 <魏都賦>의 “中山의 순주(醇酎)에 천일동안 빠졌네(醇酎中山, 流湫千日.)”에 劉涓子 이 단 주에 이 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中山 땅에는 미주가 생산이 되는데, 그 지역 민간에서 전해져 일컫기를 ‘일찍이 玄石이라는 사람이 中山 땅 술집에서 술을 샀다. 술집에서 그에게 천일주를 주며, 그에게 술 마시는 법도를 말하였는데, 수백 리 길을 돌아 가다 보면,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말대로 그것을 마시니, 집에 이르러 취하였다. 그의 집에서는 그가 취한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여겨, 그를 관에 넣고 장례를 지냈다. 중산 땅 술집에서는 계산해보니 장차 천일이 가까워져, 기억하며 이르기를 <玄石이 저번에 술을 샀는데, 그가 취한 것이 장차 깰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가서 물어보니, 玄石의 이웃이 말하기를 <玄石은 죽은 지 3년 되었고, 3년 상도 이미 끝났소>라고 하였다. 이에 玄石 집 사람들과 玄石 묘지에 가서, 玄石의 관을 캐내어 여니, 玄石이 이때 취한 것에서 비로소 깨어 나 관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속담에서 이르기를 ‘玄石이 술을 마셨는데, 천일동안 계속 취하였다.’(中山出好酎酒, 其俗傳云: 昔有人曰玄石者, 從中山酒家沽酒, 酒家與之千日之酒, 語其節度, 比歸數百里, 可至於醉. 如其言飲之, 至家而醉, 其家不知其醉, 以爲死也, 斂棺而葬之.’ 中山酒家計向千日, 憶曰: ‘玄石前來沽酒, 其醉向解也.’ 遂往問, 其隣人曰: ‘玄石死來三年, 服已闕矣.’ 於是與其家至玄石冢上, 掘而開其棺, 玄石於是醉始解, 起於棺中. 其俗語曰: ‘玄石飲酒, 一醉千日.’) ”

51) 屬(속): 마침. ○眩: (눈이) 어질어질하다.

52) 晨霾: 이른 아침의 연무. 王琦는 “晨霾는 이른 때의 흐릿한 안개의 기운이다(晨霾, 早時昏霧之氣.)”라고 하였다.

53) 乏離朱之明: 離婁처럼 밝은 눈이 아니다. ○離朱: 전설시기인 黃帝 때 사람. 시력이 좋았다고 전해진다. 이 구와 관련된 글이 <孟子·離婁上>의 ‘離婁之明에 趙岐가 단 주에 잘 나와 있다. “離婁는 옛날의 눈 밝은 자이다. 아마도 황제 때 사람으로 여겨진다. 황제가 자신의 검은 구슬을 잃게 되자, 離朱에게 찾도록 시켰다. 離朱는 바로 離婁로, 백 보 밖에서도 볼 수 있고, 가을철 털갈이한 짐승의 가는 털도 볼 수 있었다.(離婁者, 古之明目者. 蓋以爲黃帝之時人也. 黃帝亡其玄珠, 使離朱索之. 離朱即離婁也. 能視於百步之外, 見秋毫之末.)” 離朱之明이라는 전고는 <孟子> 뿐만 아니라 <莊子>, <慎子>, <淮南子> 등의 제자백가서 및 역사서에도 인용되었다.

54) 昧王戎之視: 王戎처럼 해를 보아도 어질어질 하지 않는 눈이 아니다. ○昧: 어둡다. 여기에서는 시력이 좋지 못하다. ○王戎: 西晉의 名士이며 竹林七賢 중의 한 명. 이 구와 관련된 글이 <晉書·王戎傳>에 나온다. “王戎은 어렸으나, 아주 똑똑하였고, 정신과 풍채는 수려하고 투철하였으며, 해를 보더라도 어질어질 하지 않았다. 裴楷가 그를 만나 보고서는 말하였다. ‘王戎은 눈이 번쩍번쩍했는데, 마치 바위 밑에 친 번개 같았다.(戎幼而穎悟, 神彩秀徹, 視日不眩, 裴楷見而目之曰: 戎眼爛爛如巖下電.)”

55) 青白其眼: 두 눈이 반은 부릅떠지고 반은 감겨져 있다. ○青: 靑眼 즉 正視, 안구가 가운데

亦何異抗莊公之輪, 怒螻螂之臂,⁵⁷⁾ 御者趨召,⁵⁸⁾ 明其是非. 入門鞠躬, 精魄飛散. 昔徐邈緣醉而賞, 魏王卻以爲賢⁵⁹⁾; 無鹽因醜而獲,⁶⁰⁾ 齊君待之逾厚.⁶¹⁾ 白, 妄

있음. 사람에게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白: 白眼 즉 斜視. 안구가 중간에 있지 않음. 사람을 멸시함을 나타낸다. 이 구와 관련된 글이 《晉書·阮籍傳》에 나온다. “阮籍은 또한 청안과 백안을 잘 사용하였다. 예의를 숭상하는 세속적인 선비를 만나면 백안으로 그를 대하였다.嵇喜가 조문을 왔는데, 阮籍이 백안으로 보아, 嵇喜는 불쾌하여 가버렸다. 嵇喜의 동생 嵇康이 그 일을 듣고, 이에 술을 들고 거문고를 끼고 방문하니, 阮籍은 크게 기뻐하여, 청안으로 보았다. (籍又能爲青白眼, 見禮俗之士, 以白眼對之. 及嵇喜來弔, 籍作白眼, 喜不慚而退. 喜弟康聞之, 乃齋酒挾琴造焉, 籍大悅, 乃見青眼.)”

- 56) 瞽: (눈이) 어둡다. 《集韻》에서 “瞽는 눈이 밝지 않다 이다.(瞽, 目不明也.)” 라고 하였다.
 57) 怒螻螂之臂: 사마귀가 기세등등하게 그 팔뚝을 펼치다. ○怒: 기세가 등등하다. 이 구와 관련된 글이 《韓詩外傳》 권8에 나온다. “齊莊公이 사냥을 나갔는데, 사마귀가 발을 들고 수레를 막으려고 하여, 수레 모는 사람에게 물었다. ‘이건 무슨 벌레인가?’ 수레 모는 사람이 말했다. ‘이것은 사마귀입니다. 이 벌레는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설 줄은 모르고,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적을 가벼이 여기고 덤벼듭니다.’ 齊莊公이 말했다. ‘이것이 사람이란면 반드시 천하무적의 용사가 될 터이다.’ 그러고서는 수레를 돌려 사마귀를 피하였는데, 그 후 천하의 용사들이 이러한 일을 들은 뒤에 모두 분분하게 귀순하였다.(齊莊公出獵, 有螻螂舉足將搏其輪, 問其御曰: ‘此何蟲也?’ 御曰: ‘此是螻螂也. 其爲蟲知進而不知退, 不量力而輕就敵.’ 莊公曰: ‘以爲人必爲天下勇士矣. 於是迴車避之, 而勇士歸.’) ”

- 58) 御者: 마부. 여기에서는 李長史 주위에 있던 사람.
 59) 昔徐邈緣醉而賞, 魏王卻以爲賢: 일찍이 魏의 徐邈은 금주령을 어기고 술에 취하였지만 인정을 받았는데, 위나라 왕은 (그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현명한 자로 여겼다. ○緣: 때문에 ○賞: 존중받다. 인정받다. 이 두 구와 관련된 글이 《三國志·魏書·徐邈傳》에 나온다. “徐邈의 자는 景山이고, 燕國의 薊縣 사람이다. 太祖(역주: 曹操)가 河朔을 평정하자, 徐邈을 불러 丞相軍謀掾으로 삼고, 견습 삼아 奉高의 술을 대리하게 하고, 후에 입조시켜 東曹議令史로 삼았다. 위나라가 막 건국되었을 때 尙書郎으로 임명되었다. 그 때는 금주령이 행해졌는데, 徐邈은 사사로이 술을 마시고 대취하였다. 校事 趙達이 그에게 직무를 물으니, 徐邈은 ‘성인에 들어맞습니다.’라고 말했다. 趙達이 이 말을 태조에게 아뢰니, 태조가 심히 화가 났다. 度遼將軍 鮮于輔가 진언하여 말했다. ‘평소에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이 맑은 것은 성인이라 하고, 술이 흐린 것은 현인이라고 합니다. 徐邈은 예의바르고 신중한 사람인데, 우연히 취하여 한 말일 뿐입니다.’ 徐邈은 결국 이로 인해 처벌을 면하였다. 나중에 그는 隴西太守가 되었다가 南安太守로 옮겼다. 문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譙國의 戕, 平陽 및 安平太守, 潁川典農中郎將을 역임하였는데, 책임하는 곳마다 칭송이 자자해, 關內侯의 작위가 하사되었다. 황제가 許昌에 행차했을 때 徐邈에게 물어 말했다. ‘자못 다시 성인에 들어맞는가?’ 徐邈이 대답하여 말했다. ‘일찍이 子反은 穀陽에서 죽었고, 御叔은 술 마시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신이 좋아하는 것이 이 두 사람과 같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으니, 항상 여전히 성인에 들어맞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가 있는 사람은 추함으로써 전해지는데, 신은 술에 취한 것으로써 폐하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크게 웃으며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徐邈의 명성은 헛되이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徐邈字景山, 燕國薊人也. 太祖平河朔, 召爲丞相軍謀掾, 試守奉高令, 入爲東曹議令史. 魏國初建, 爲尙書郎, 時科禁酒, 而邈私飲至於沈醉. 校事趙達問以曹事, 邈曰: ‘中聖人.’ 達白之太祖, 太祖甚怒. 度遼將軍鮮于輔進曰: ‘平日醉客謂酒清者爲聖人, 濁者爲賢人. 邈性脩慎, 偶醉言耳.’ 竟坐得免刑. 後領隴西太守, 轉爲南安. 文帝踐阼, 歷譙相, 平陽, 安平太守, 潁川典

人也, 62) 安能比之. 上掛<國風>相鼠之讖, 63) 下懷<周易>履虎之懼, 64) 慙以固陋, 65) 禮而遣之. 66) 幸容甯越之辜, 深荷王公之德. 67) 銘刻心骨, 退思狂慙, 68) 五情冰炭, 69) 罔知所措. 70) 晝愧於影, 夜慚於魄. 啓處不遑, 71) 戰踞無地. 72)

農中郎將, 所在著稱, 賜爵關內侯. 車駕幸許昌, 問逸曰: '頗復中聖人不?' 逸對曰: '昔子反斃於穀陽, 御叔罰於飲酒, 臣嗜同二子, 不能自懲, 時復中之. 然宿瘤以醜見傳, 而臣以醉見識.' 帝大笑, 顧左右曰: '名不虛立.'")

- 60) 無鹽: 齊나라의 추녀.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로, 성은鍾離, 이름은춘이다. 제나라의 無鹽 [지금의 山東省 東平縣]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無鹽女'라고 칭하였다. 그녀는 용모가 아주 추하여 나이가 40이 되어서도 시집을 가지 못하였지만, 政事에 아주 관심이 많았으며, 齊宣王을 알현했을 때 제선왕의 방탕함과 부정부패를 질타하여 제선왕이 이에 감동받아 그녀를 왕후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新序> 권2에서 그녀의 모양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나라에 돌도 없을 만큼 아주 못 생긴 여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無鹽女라고 불렀다. 그 여자는 머리는 절구모양, 눈은 깊게 파였고, 골격은 길고 건장했고, 코는 들창코였고, 남자 같이 목 것이 있었고, 목은 뒤룩뒤룩했고, 머리는 짧았으며, 허리는 꺾여 있었고, 가슴은 돌출해 있었으며, 피부는 옷칠한 듯 했다.(齊有婦人極醜無雙, 號曰無鹽女. 其爲人也, 白頭深目, 長壯大節, 昂鼻結喉, 肥項少髮, 折腰出胸, 皮膚若漆.)"
- 61) 逾: 더욱. 한층.
- 62) 妄: 무지하고 망령되다.
- 63) <國風>相鼠之讖: 이 구는 <詩經·鄘風·相鼠>의 "쥐조차도 가죽이 있는데, 사람이면서 예의가 없으니. 사람이면서 예의가 없는데, 죽지 않고 무엇 하나?(相鼠有皮, 人而無儀. 人而無儀, 不死何爲?)"에서 취한 것이다.
- 64) <周易>履虎之懼: 이 구는 <周易·履卦>의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사람을 무니, 흉하다(履虎尾, 咥人, 凶.)"에서 취한 것이다.
- 65) 慙: 불쌍히 여기다. ○固陋: 건문이 넓지 않다.
- 66) 遣: 본래의 의미는 석방하다. 이 글에서는 처리, 처분, 처벌하다. 보내주다. ○之: 我的 뜻.
- 67) 幸容甯越之辜, 深荷王公之德: 운 좋게도 그대께서 동해군수 왕안기가 야금을 어긴 甯越의 죄를 태형으로 다스려 위엄을 세우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저는 왕공과 같은 그대의 은덕을 깊게 입었습니다. ○容: 포용하다, 용서하다. ○辜: 罪. ○荷: 은혜를 입다. ○王公: 王承을 가리키는데, 그는 쫓나라 사람으로, 東海郡太守를 역임하였다. 이 두 구와 관련된 글이 <世說新語·政事>에 나온다. "王安期가 東海郡守를 할 때, 아전이 야금을 어긴 자를 잡아 왔다. 王安期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었어?' 그 사람이 말했다. '스승의 집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王安期가 말했다. '甯越를 체적질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은 아마도 다스림의 근본에 이르는 것이 아닐 것 같다.' 아전에게 그를 귀가하도록 시켰다.(王安期作東海郡, 吏錄一犯夜人來. 王問: '何處來?' 云: '從師家受書還, 不覺日晚.' 王曰: '鞭撻甯越以立威名, 恐非致理之本.' 使吏送令歸家.)"
- 68) 狂慙: 큰 잘못으로, 愆은 <說文解字>에서 "愆은 허물이다(愆, 過也.)"라고 하였다.
- 69) 五情: 喜, 怒, 哀, 樂, 怨의 다섯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데, 보통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文選> 권20 曹植<上責躬應詔詩表>의 "마음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다(五情愧赧.)"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劉良이 "五情은 喜·怒·哀·樂·怨이다(五情, 喜, 怒, 哀, 樂, 怨.)"

<校記>

[恹惶]: ‘恹’는 劉本·全唐文에서 ‘懷’로 되어 있다.

[遠客]: 송축본에서는 원래 ‘言客’으로 되어 있다. ‘言’은 郭本·劉本·王本·全唐文에서 ‘遠’으로 되어 있는데, 첨영이 옳다고 여겨 고쳤다.

[邛城]: ‘邛’은 郭本·劉本에서는 ‘邛’으로 되어 있고, 王本에서는 주를 달아 “蕭本에서는 邛으로 되어 있다(蕭本作邛)”라고 말하고 있는데, 첨영은 틀린 것이라고 한다.

[螻螂]: ‘螻’은 송축본·咸本·郭本에서는 ‘螻’, 王本에서는 ‘螻’인데, 첨영은 ‘螻’이 옳지만, ‘螻’도 가능하다고 한다.

[愍以}: ‘愍’은 咸本에서는 ‘慙’으로 되어 있고, 王本에서는 주를 달아 “마땅히 愍으로 해야 한다(當作愍.)”라고 하고 있다.

[王公]: ‘王’은 全唐文에서는 ‘三’으로 되어 있는데, 첨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狂憊}: ‘憊’은 郭本·劉本에서 ‘僣’로 되어 있다.

저는 홀로 장검을 차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으리요? 슬프게 노래하며 스스로를 연민해 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편안하게 지낼 틈이 없었으니, 앉은 자리가 따뜻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객지를 떠돌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기거하고 있으니 무엇을 우리러 볼 수 있겠습니까? 뜬 구름과 같아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남쪽으로 가려해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북쪽으로 가려해도 가야

樂、怨也.)”라고 주를 달았다. ○冰炭: 얼음과 숯. 성질이 상반되어 서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韓非子·顯學》의 “모름지기 얼음과 숯은 같은 그릇에 오래 있을 수 없고, 겨울과 여름은 같은 때에 오지 않는 법이다(夫冰炭不同器而久, 寒暑不兼時而至.)”에 그 용례가 있다.

70) 罔知所措: 어찌할 바를 모르다.

71) 啓處不遑: 앉으나 서나 한가롭게 있을 수 없다. ○啓: 꿇어앉다. ○處: 거하다. ○不遑: 한가함이 없다. 《詩經·小雅·采薇》의 “나랏일 끊임없이 앉아서 머무를 틈도 없네.(王事靡盬, 不遑啓處.)”에 그 용례가 있는데, 毛傳에서 “遑은 틈이고, 啓는 꿇어앉다 이다(遑, 暇; 啓, 跪也.)”라고 하였고, 또한 “處는 居와 같다(處, 猶居也.)”라고 하였으며, 孔穎達의 《正義》에서는 “한가하게 앉아 거할 수 없다(不得間暇而跪處.)”라고 하였다.

72) 戰: 떨다. ○蹠: 안절부절 하다. ○無地: 다함이 없다. 그지없다.

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친구 하나가 멀리 汝水에서 객지 생활하다가 근자에 安陸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제 그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 한 잔에 웃음 한 번, 통쾌하게 취흥을 즐겼습니다. 황하 이북의 맛좋은 술을 몽땅 들이키고, 中山 땅의 맛좋은 술도 배불리 마셨습니다. 마침 이른 아침인지라 눈이 어질어질하였고, 이른 아침의 흐릿한 기운도 아직 걷히지 않았고, 離婁처럼 밝은 눈도 아니었고, 王戎처럼 해를 보아도 어질어질 하지 않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두 눈이 반은 부릅떠지고 반은 감겨져 침침한 상태에서 비틀비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齊) 莊公이 사냥 나갔을 때 사마귀가 기세등등하게 그 팔뚝을 펼쳐서 그의 수레를 막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행히 그대의 어거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뛰어와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대의 문으로 들어서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고, (술이 반쯤 깨어나니) 놀라 혼비백산할 지경이었습니다. 일찍이 魏의 徐邈은 금주령을 어기고 술에 취하였지만 인정을 받았는데, 위나라 왕은 (그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현명한 자로 여겼습니다. 無鹽女는 용모가 추하였지만 오히려 총애를 얻게 되어, 제나라 임금은 그녀를 후대하여 왕후로 삼았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망령된 사람이니, 어떻게 그들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위로는 《시경·국풍》에서 말한바 사람이 예의가 없다면 가족이 있는 쥐만도 못하다는 기룡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주역》에서 말한바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잡아먹힌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견문이 넓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를 갖추어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운 좋게도 그대께서 동해군수 왕안기가 야금을 어긴 甯越의 죄를 태형으로 다스려 위엄을 세우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저는 왕공과 같은 그대의 은덕을 깊게 입었습니다. 저는 (그대의 은덕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뼈에 새기고, 물러나 돌아와서 저의 큰 잘못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로써 낮에는 저의 그림자에 부끄러워하고, 밤에는 혼백에 부끄러웠습니다. 앓으나 서나 불안하여 한가롭게 있을 수 없었고, 그지없이 부들부들 떨며 안절부절 하였습니다.

2.4 옆드려 생각건대 君侯께서는

伏惟君侯, 明奪秋月, 和均韶風,⁷³⁾ 掃塵辭場,⁷⁴⁾ 振發文雅.⁷⁵⁾ 陸機作太康之傑士,⁷⁶⁾ 未可比肩⁷⁷⁾; 曹植爲建安之雄才,⁷⁸⁾ 惟堪捧駕⁷⁹⁾. 天下豪俊, 翕然趨風,⁸⁰⁾ 白之不敏,⁸¹⁾ 竊慕餘論.⁸²⁾

<校記>

[辭場]: 王本에는 '詞場'으로 되어 있다.

[建安]: 송측본에는 원래 '建武'로 되어 있다. 成本·陸本·郭本·劉本·王本·全唐文에서는 '建安'으로 되어 있는데, 첨영이 옳다고 여겨 고쳤다.

옆드려 생각건대 君侯께서는 명찰하심이 가을 달을 넘어서시고, 부드러움은 和風과도 같사오며, 문단의 먼지를 털어내시고, 문아를 떨쳤습니다. 陸機는 太康 때의 걸출한 선비이지만, 君侯와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습니다. 曹植

73) 韶風: 부드러운 바람. 미덕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 王琦는 "韶風은 부드러운 바람이다(韶風, 和風也.)"라고 하였다.

74) 辭場: 문단.

75) 文雅: 詩文을 짓고 읊는 풍류의 도.

76) 陸機: 西晉시기의 관리 겸 문학가. 저서로 <文賦>가 있다. 鍾嶸은 《詩品序》에서 "陳思王 曹植은 建安 때의 걸출이며, 劉楨과 王粲이 그의 보좌가 된다. 陸機는 太康 때의 꽃이며, 潘岳과 張協이 그의 보좌가 된다(陳思爲建安之傑, 公幹仲宣爲輔; 陸機爲太康之英, 安仁景陽爲輔.)"라고 하였다. ○太康: 西晉 武帝 司馬炎의 세 번째 연호로 서기 280년에서 289년까지를 말한다. 王琦는 "太康은 西晉의 연호이다. 그 때에 左思, 潘岳, 二張(역주: 張載, 張協), 二陸(역주: 陸機, 陸雲)의 시가 있었다(太康, 西晉年號, 時則有左思, 潘岳, 二張, 二陸之詩.)"라고 하였다.

77) 比肩: 상호간의 지위가 비슷하다.

78) 建安: 東漢 獻帝 劉協의 다섯 번째 연호로 196년~220년이다. 王琦는 "建安은 한말의 연호이다. 이 때는 曹氏 부자와 鄴中七子の 시가 있었다(建安, 漢末年號, 時則有曹氏父子及鄴中七子之詩.)"라고 하였다.

79) 堪: 말다. ○捧: 받들다. ○駕: 수레의 총칭으로, 주로 임금에 타는 수레를 가리킨다.

80) 翕然: 대중의 의사가 한 곳으로 쏠리는 정도가 대단한 모양. ○趨風: 바람처럼 한 방향으로 불다.

81) 不敏: 영민하지 않다. 《論語·顏淵》의 "回가 비록 영민하진 않지만, 청컨대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回雖不敏, 請事斯語矣.)"에 그 용례가 있다.

82) 餘論: 박학하고 깊이 있는 견식이나 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존경어.

은 建安 때의 뛰어난 才士이지만, 단지 수레를 받들 뿐입니다. 천하의 호걸과
 준수들은 일치하여 바람처럼 달려가서 그대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저는 영민
 하지 못하여 그저 마음속으로만 그대의 박학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경모하고
 있습니다.

2.5 어찌 嵇康처럼 뜻을 얻지 못해 낙담하여

何圖叔夜潦倒,⁸³⁾ 不切於事情⁸⁴⁾; 正平猖狂, 自貽於恥辱.⁸⁵⁾ 一忤容色,⁸⁶⁾ 終

- 83) 何圖: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叔夜: 嵇康의 자. ○潦倒: 뜻을 얻지 못해 낙담하다.
- 84) 不切於事情: 사리에 부합하지 않다. 《文選》 권43 嵇康<與山巨源絕交書>의 “족하는 예부터 제가 낙담하여 제 멋대로 살며, 사리와 부합하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足下舊知吾潦倒麤疏, 不切事情.)”에 그 용례가 있다.
- 85) 正平猖狂, 自貽於恥辱: 禰衡이 미치광이처럼 하여 스스로 치욕을 준다. ○正平: 後漢 말엽 때 문인 禰衡의 자. 이 두 구와 관련된 글이 《後漢書·禰衡傳》에 나온다. “禰衡의 자는 正平이다. 平原般縣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재주와 기지가 뛰어났으며, 절개를 숭상하였으며 성격이 강직하고 자부심이 강했다. 현실에 불만하였고, 오만불손하였다. 오직 魯國의 孔融과 弘農의 楊修와 우호적이었다. 孔融은 그의 재주를 심히 아꼈다. 禰衡은 갓 20살이었고, 孔融은 40살이었지만, 결국은 서로 사귀어 친구가 되었다. 孔融은 禰衡의 재주를 심히 아끼어, 曹操에게 여러 번 칭찬하여 말했다. 曹操가 그를 만나고 싶었으나, 禰衡은 평소에 曹操를 무시하고 싫어하여, 스스로 미친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만나러 가려 하지 않았고, 曹操에 대해 여러 번 방자한 말을 하였다. 曹操는 분노하였으나, 禰衡의 재주와 명성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禰衡이 북을 잘 친다는 소리를 듣고, 불려서 鼓史로 삼았다. 그런 후에 연회를 크게 열어 손님을 초대하여, 소리와 질주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러 鼓史들이 지나갈 때, 모두 입고 있던 옷을 벗게 하고, 岑牟와 單絞 같은 옷을 갈아입게 하였다. 禰衡이 차례가 되어, <漁陽參撾>를 연주하였는데, 잔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며, 용모와 자태가 비범하였고, 소리와 질주가 비장하여 듣는 사람들이 모두 복받쳤다. 禰衡은 曹操 앞에 이르자 멈추었다. 관리가 그를 질책하여 말하였다. ‘鼓史는 어찌하여 옷을 갈아입지 않고, 경솔하게 감히 나아갑니까?’ 禰衡이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두령이를 벗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옷을 벗고서는, 나체로 서서, 서서히 岑牟와 單絞를 들고 입었다. 다 입고서는 다시 북을 치며 갔는데, 얼굴색은 전혀 송구해 하지 않는 것이었다. 曹操가 웃으며 말했다. ‘원래는 禰衡을 욕보이려고 했는데, 禰衡이 도리어 날 욕보였다.’ (禰衡字正平, 平原般人也. 少有才辯, 而尙氣剛傲, 好矯時慢物. 唯善魯國孔融及弘農楊修. 融亦深愛其才. 衡始弱冠, 而融年四十, 遂與爲交友. 融既深愛衡才, 數稱述於曹操. 操欲見之, 而衡素相輕疾, 自稱狂病, 不肯往, 而數有恣言. 操懷忿, 而以其才名不欲殺之. 聞衡善擊鼓, 乃召爲鼓史, 因大會賓客, 閱試音節. 諸史過者, 皆令脫其故衣, 更著岑牟單絞之服. 次至衡, 衡方爲<漁陽參撾>, 蹀躞而前, 容態有異, 聲節悲壯, 聽者莫不慷慨. 衡進至操前而止. 吏呵之曰: “鼓史何不改裝而輕敢進乎?” 衡曰: “諾.” 於是先解相衣, 次釋餘服, 裸身而立, 徐取岑牟單

身厚顏,⁸⁷⁾ 敢沐芳負荊, 請罪門下,⁸⁸⁾ 儻免以訓責,⁸⁹⁾ 恤其愚蒙, 如能伏劍結纓,⁹⁰⁾ 謝君侯之德. 敢一夜力撰《春遊救苦寺》詩一首十韻、《石巖寺》詩一首八韻、《上楊都尉》詩一首三十韻,⁹¹⁾ 辭旨狂野,⁹²⁾ 貴露下情,⁹³⁾ 輕干視聽,⁹⁴⁾

絞而著之, 畢, 複參過而去, 顏色不怍. 操笑曰: “本欲辱脣, 衡反辱孤.”

- 86) 怍: 거스르다. 실례하다. ○容色: 용모와 안색, 온화한 안색.
- 87) 厚顏: 뻔뻔스럽다. 顏厚와 같다.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부끄럽다’의 뜻을 나타낸다. 《尚書·五子之歌》의 “낮이 두꺼워 부끄러워라(顏厚有忸怩.)”에 그 용례가 있는데, 孔傳에서 “顏厚는 얼굴이 부끄럽다. 忸怩는 마음이 창피하다. 어진 이와 어진 선비에게 부끄럽다(顏厚, 色愧; 忸怩, 心慚. 慚愧於仁人賢士.)”라고 하였다. 《文選》 孔稚珪 <北山移文>의 “어찌하여 향기로운 두약으로 하여금 얼굴을 두껍게 하고, 향기로운 벽려로 하여금 수치를 모르게 하나(豈可使芳杜厚顏, 薜荔無恥.)”에도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李善이 “《尚書》에 ‘내 마음은 얼굴이 두꺼워 부끄럽네’라고 했다(《尚書》: ‘余心顏厚有忸怩.’)”라고 주를 달았다.
- 88) 敢: 외담되게. ○沐芳: 향초몰로 머리를 감다. 경건과 고결을 나타냄에 상용된다. 《楚辭·九歌·雲中君》의 “난초 우러낸 물에 몸 씻고 향초몰로 머리감고, 옷은 화려한 것 입으니 꽃과 같구나(浴蘭湯兮沐芳, 華彩衣兮若英)”에 그 용례가 있으며, 이백의 시 《沐浴子》의 “향초몰로 머리 감고는 관을 털지 말고, 난초 우러낸 물에 몸 씻고는 옷을 털지 마라.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깨끗해서는 안 좋으니, 덕 높은 사람은 빛 감추는 걸 귀히 여기네(沐芳莫彈冠, 浴蘭莫振衣. 處世忌太潔, 至人貴藏暉.)”에도 그 용례가 있다. ○負荊: 가시나무를 지다. 廉頗와 藺相如와 관련된 전고에서 나온 말이다. 그 전고는 잘 알려진 것으로 《史記·廉頗藺相如列傳》에 잘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負荊’이라는 글이 나와 있는 부분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廉頗는 그것을 듣고, 옷을 벗고,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 빈객을 따라 藺相如 집문 앞에 와서 사죄하였다(廉頗聞之, 肉袒負荊, 因賓客至藺相如門謝罪.)”인데, 《索隱》에서 “負荊에서 荊은 가시나무로, 회초리를 만들 수 있다(負荊者, 荊, 楚也, 可以爲鞭也.)”라고 하였다.
- 89) 儻: 만약. 후시.
- 90) 如能伏劍結纓: 칼에 얹드려 죽고 갓끈을 매고 죽을 수 있다면 ○伏劍과 관련된 글이 《左傳》 襄公三年의 “魏絳이 와서 僕人(역주: 관명)에게 서신을 주고, 칼을 뽑아 자신을 찌르려 하자, 士魴과 張老가 말했다(魏絳至, 授僕人書, 將伏劍, 士魴, 張老止之.)”에 있는데, 그것의 疏에 “將伏劍에 대해 《正義》에서 말했다. ‘칼날을 위로 하여 그 위에 몸을 얹드려 죽는 것을 일컫는다’(將伏劍, 《正義》曰: ‘謂仰劍刃, 身伏其上而取死也.’)”라고 하였다. ○結纓과 관련된 글이 《左傳》 哀公十五年的 “太子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石乞와 孟黷에게 子路和 대적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창으로 子路를 쳐서, 子路의 갓끈이 끊어졌다. 子路는 ‘군자는 죽을 때라도 갓은 벗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나서 갓끈을 매고 죽었다(太子聞之懼, 下石乞, 孟黷蔽子路. 以戈擊之, 斷纓. 子路曰‘君子死, 冠不免.’ 結纓而死.)”에 있다. 《南史·江淹傳》<上建平王書>의 “항상 갓끈을 매든지 칼에 얹드리든지 할 것이며, 우선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배를 가르고 손과 발이 닳도록 하여 임금님께 보답하리오(常欲結纓伏劍, 少謝萬一, 剖心摩踵, 以報所天.)”에 그 용례가 있다. 王琦는 이 구에 대해 “마치 자신을 죽여 덕에 보답함을 말하는 것과 같다(猶自殺身以報德也.)”라고 하였다.
- 91) 《春遊救苦寺》詩: 《方輿勝覽》 권31 德安府에 “불사 救苦寺는 府의 서쪽으로 4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금의 이름은 勝業院이다. 李白에게 <春遊救苦寺>라는 시가 있다(佛寺 救苦寺: 在府西四十里, 今名勝業院. 李白有 <春遊救苦寺>詩.)”라고 하였다. 崔영은 송대의

幸乞詳覽. 95)

<校記>

[恥辱]: ‘恥’는 劉本에서 ‘車止’로 되어 있는데 첨영은 잘 못된 것이라고 한다.

[沐芳負荊]: 劉本에는 ‘沐芳’이 없다. 咸本·陸本·郭本·王本·全唐文에서는 ‘沐芳’이 ‘昧’로 되어 있다.

[一夜力撰]: 咸本·陸本·郭本·劉本·王本·全唐文에서는 ‘以近所爲’로 되어 있다. 何校陸本の 旁注에서 “어떤 판본에서는 ‘一夜力撰’으로 되어 있다(一作一夜力撰)”라고 말하고 있다.

[輕干] ‘干’은 劉本에서는 ‘于’로 되어 있는데, 첨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어찌 嵇康처럼 뜻을 얻지 못해 낙담하여, 사리에 부합되지 않은 행동을 했겠으며, 禰衡처럼 狂妄하여 스스로에게 치욕을 주는 짓을 했겠습니까? 한번 그대의 온화한 안색에 무례를 범하게 되었기에 평생토록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람되게 향초 물로 머리 감고, 가시나무를 지고, 문하에 가서 죄를 청하옵니다. 혹시라도 질책을 하지 않으시고, 저의 우매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약 제가 칼에 옆드려 죽고 갓끈을 매고 죽을 수 있게 된다면 군후의 은덕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루밤새 힘써 十韻으로 된 <春遊救苦寺> 詩一首, 八韻으로 된 <石巖寺> 詩一首, 三十韻으로 된 <上楊都尉> 詩一首를 지었습니다. 언사와 뜻이 광포하고 조야하지만, 귀중하다 여길만한 점은 저의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대께서 보고 들으시는데 경솔하게 방해를 주는 것이지만

德安府의 治所가 지금의 湖北省 安陸市에 있다고 한다. ○《石巖寺》: 이백의 시에 나오는 石巖寺에 대해 첨영은 安陸에 있는 石巖山에 있는 것 같다고 한다. 《方輿勝覽》권31 德安府에 “산천으로 石巖山이 있는데, 府의 남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山川: 石巖山, 在府南十里.)”라고 하였다. 《春遊救苦寺》, 《石巖寺》, 《上楊都尉》 세 편의 시는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92) 辭旨: 글 혹은 말이 나타내는 함의, 감정 색채 및 작풍. ○狂野: 광포하고 조야하다.

93) 貴露: 귀중한 것을 드러내다. ○下情: 자신의 마음이나 상황.

94) 輕干: 경솔하게 지장을 주다.

95) 幸乞: 바라고 간청하다.

꼼꼼히 보아주시기를 바라고 간청합니다.

3. 해설 및 결론

<上安州李長史書>는 開元17년(729), 李白이 安陸에 은거할 때 安州의 長史 李京之에게 쓴 사과서신이며, 동시에 뱃기를 원하며 관직을 청하는 자기추천서이다. 때문에 표면상 행차수레를 부딪친 것에 대해 용서를 얻고 그 감격과 부끄러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면으로는 사과의 명분을 빌어 자신의 재능, 학문과 수양을 서술하여 李長史의 주의와 관심 및 알아줌과 보살핌의 기회를 얻고자한 것이다.

<上安州李長史書>은 내용의 층차가 분명하면서도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 구성은 전체 문장을 ‘自薦’으로 문장 전체를 관통시키고, ‘謝過’와 ‘自述’ 두 내용을 상호 교차, 교직시키면서 그것을 돌출시켰다. ‘謝過’에서는 행차수레를 부딪친 원인과 경과·李長史에 대한 아량과 용서에 대한 감격 및 인품, 재능, 지위 등에 대한 공경을 서술하였다. ‘自述’에서는 자신의 개성·학문과 수양·자신의 됨됨이·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자기 인생의 부끄러운 행동의 반성·시를 바쳐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서술하였다.

문장에는 대량의 전고를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자신의 희망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죄를 지었지만 그로 인하여 도리어 인정받는 것, 죄를 지었지만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용서받고 깊은 은덕을 느낀 것 등이다. 이러한 전고로써 자신을 비유하였으며 李長史가 관대한 아량이외도 또한 자신과 같은 賢才를 알아보는 혜안을 가져야 역사인물들과 더불어 후세의 추앙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上安州李長史書>은 전문 115구 590자이며, 내용상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락(“白, 嶽崎歷落可笑人也”~“方能恕之也”)은 자신이 특출하고 비범

함을 지녔음에도 역대전적과 百家를 궁구하여 갖춘 학식을 서술하였다. 또한 행차수레를 부딪친 것은 李長史가 자신의 친구 魏洽와 서로 비슷하여 오인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기를 바랐다. 특히 “惟大雅含弘，方能恕之也”는 李長史의 미덕을 존승하는 표현이지만 또한 일종의 용서를 압박하는 어투이다. 이 단락에서 有若과 孔子 등 용모가 서로 비슷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제2단락(“白少頗周慎”~“九死非謝”)은 자신이 원래는 주도면밀하고 신중하지만 오해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외형이 비슷하여 진짜로 오인한 죄를 범하였음을 서술하였다. 또한 재차 李長史가 ‘冬日之愛’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자신을 용서하였음을 칭송하였다. 이 단락에서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받은 전고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衛青·袁逢으로 李長史를, 汲黯·趙壹로 자신을 비유하여 자신을 용서해주며 알아주기를 바라는 감정이 흘러넘친다.

제3단락(“白孤劍誰託”~“戰蹶無地”)은 자신의 신세가 영락하여 뜬 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음을 서술하여, 李長史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감정을 나타내었다. 재차 행차수레를 부딪친 연유를 설명하였는데, 어제 친구를 만나 狂飲하여 금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안개가 짙게 깔린 상황에서 시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동시에 깊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 단락에서 또한 徐邈·甯越·無鹽女 등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과오를 너그럽게 용서받고 또한 재능을 인정받고자 하는 감정을 은근하게 표현하였다.

제4단락(“伏惟君侯”~“竊慕餘論”)은 李長史를 극도로 공경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문장 가운데 “掃塵辭場，振發文雅”，“天下豪俊，翕然趨風”등의 찬사와 陸機·曹植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 등은 공경의 감정이 지나칠 정도이다.

제5단락(“何圖叔夜潦倒”~“幸乞詳覽”)은 자신을 嵇康·禰衡·廉頗에 비유하여 가시나무를 지고 죄를 청하겠다는 진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과오를 씻을

수 있다면 갓끈을 매고 죽더라도 칼에 얹드려 죽더라도 감사하게 여기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시 3편을 지어 올려, 李長史에게 자신의 문재를 인정받고 의탁하고자하는 심리를 드러내었다. 그가 지어 올린 시 3수 <春遊救苦寺> · <石巖寺> · <上楊都尉>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제1단락에서 제3단락까지는 '自述'과 행차수레를 부딪친 원인을 상호 교차하고 교직하여 서술하였지만, 이는 서신의 명분에 불과하며 그 중점은 제4, 5단락에 있다. 여기에는 李長史의 才學과 인품에 대한 극도의 칭송 및 과오를 용서받고자 하는 진정이 표현되었다. 동시에 자신을 적극 드러내어 그에게 才學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대를 드러내었다. 그의 시 3수는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며 이 서신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 參考文獻 >

- 王琦,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 郁賢皓, 《李白叢考》, 陝西: 陝西人民出版社, 1982.
- 詹鍔, 《李白詩文繫年》,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 牛寶彤, 《李白文選》, 北京: 學苑出版社, 1989.
-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 四川: 巴蜀書社, 1990.
- 李白, 《李太白文集》(宋蜀刻本唐人集叢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詹鍔,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謝育爭, 《李白散文研究》, 臺灣: 文津出版社, 2012.
- 황선재, 《이태백 명시문 선집: 시선(詩仙)의 향연》, 서울: 박이정, 2013.
- 朱金城, <論李白的散文>, 《李白學刊》, 제1輯, 1987.
- 林心治, <隋唐五代的巴蜀散文(三)>, 《渝州大學學報》, 第18卷第2期, 2001.
- 申夏閔, <李白散文譯註(I)-書類<上安州裴長史書>>, 《中國語文論譯叢刊》, 서울: 중국어문논역학회, 제16집, 2010.

< Abstract >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 bai's
< Submit a Statement to Li Zhangshi >

Cho, Sung-chun · Cho, Deuk-chang

Prose of Li Bai(李白) is a support material to ascertain Li Bai's life and philosophy and to understand Li Bai's poetries. It is also a critical material to shed light on his literary ideology and his world of art. But until now researches on Li Bai conducted in the country and abroad are biased towards translation and research on Li Bai's poetry so its interest in his prose is relatively low. Especially translation comments as a basis of research are peripheral. If translation comments of Li Bai's prose have a progress, it will be one of most important material for research on Li Bai.

This prose can be divided with fifth paragraphs. The first paragraph states the reason for mistakenly hit the wagon of Li Zahngshi(李長史). The second paragraph hope that Li Zhangshi have magnanimity as Wei Qing(衛青) and Yuan Feng(袁逢), at the same time comparing himself to the Han Dynasty Celebrities. The third paragraph states recent the worst encounters in himself, once more apologize for mistakenly hit the wagon, and hope to be able to good out of evil. The fourth paragraph compliment Li Zahngshi' literary talent is better than Cao Zhi(曹植), Lu Ji(陸機). The fifth paragraph comparing himself to Mi Heng(禰衡), Ji Kang(嵇康), and present three poems to Li Zahngshi, hoping to appreciate.

Key Words: Translation and Annotation, Li Bai(李白), Prose, Li Zahngshi(李長史), Statemen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4. 28.	2017. 05. 30.	2017. 06. 11.	2017. 06. 13.	2017. 06. 30.